

[삼보사찰 천리순례 11] 서로 배려하며 발걸음

부산지사 제봉득

승인 2021.10.14 07:30

댓글 0



[앵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경남 창녕 구간을 걸었습니다. 이틀째 쏟아진 폭우로 몸은 지치고 부상은 일상이 됐지만 불교중흥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날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일일 동참을 했는데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도 순례단을 찾아와 응원했습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예불을 시작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불교중흥을 위한 기나긴 여정을 이어갑니다.

순례 13일차.

하루 평균 30km의 도보순례와 이어지는 야영.

이틀간 쏟아진 빗줄기로 몸은 지치고 부상은 일상이 됐습니다.

하루 8시간씩 걷는 강행군에 발가락 곳곳에 물집이 잡히고 폭우에 신발이 젖어 상처가 부르텃습니다.

전체뉴스



2021년 10월 27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6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5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3일 전체뉴스

2021년 10월 22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인근 공사 갈등'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불상 훼손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천진암 역사 바로잡기' 본격화.. 대불청 TF 구성



물라상가 인도불교 복원수행지도자 양성



윤석열 "독실한 불자.. 정부가 불교계 지원해야"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락

금박나 쓰기는 절구신으로 엄밀할 아고 아닌 두리할 중에는 엄격한 고승을 건너지

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이라는 염원을 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내딛는 발
걸음은 힘참니다.

정혜스님 / 고창 마하사 주지

(날씨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이제 연연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이
제 한고비는 넘어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걸으셨겠구나 이
러면서 부처님의 크고 위대한 발자취 안에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하나 포개
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민옥 /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단원

(비가 와서 의외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1조가 선두로 걸었는데 천천히 가주시
네요.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를 지나 호국성지 밀양 표충사로 향하는 여정.

창녕군을 순례하는 이번 여정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을 비롯
해 산하시설협의회 직원 30여 명과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법원스님과 신도 20여 명
이 동참했습니다.

보인스님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불교 중흥을 위해 큰스님들께서 원력을 세워 걷고 있어서 같이 한마음으로 불교중
흥을 위해 걷자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을 다 같이 극복하자는 마음과 자승 큰스님이 발원하시는
대로 불교중흥이 이뤄지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걷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와 농로로 이어지는 순례길은 자기 수행과 대중화합의 염원을 담아 묵묵
히 걷는 발걸음으로 채워집니다.

창녕 장마면에서 부곡면까지 27km 순례의 마지막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
과 국장단이 찾아와 순례단을 응원했습니다.

승보사찰 송광사부터 창녕 부곡면까지 총 322km를 걸어온 순례단은 남은 여정도 불
교중흥을 위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제봉득입니다.

부산지사 제봉득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부산지사 제봉득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 66명 • 명사 16명 품수
조계사 지현 • 봉은사 원명 • 보문사 선조스님 주지 연임
서울 도봉사, 코로나 의료진 격려
군장병 명상수행 도량 템플스테이관 개관
경주 기림사 전 주지 종광스님 입적.. 26일 영결식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호 : BTN불교티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